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관련 입장 밝혀

남원시, “기문이라는 용어 시가 요청해서 사용하는 명칭 아니다·소통·토론 공론의 장 마련할 것”

남원시는 6일,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야고분군 사용명칭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혔다.

남원시에 의하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는 남원시의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을 비롯해 김해시 대성동·함안군 말산·합천군 옥전·고성군 송학동·창녕군 교동과 송현동·고령군 지산동까지 7개 고분군이 대상이며,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은 2013년 김해, 함안, 고령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예비)목록 등재 이후, 2019년에 남원, 창녕, 고성, 합천까지 유산범위를 추가해 잠정(예비)목록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유네스코로 등재신청서가 제출됐으며, 앞으로 현지실사와 패널리스트를 거쳐 2022년 6월에 등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세계유산등재의 경우 학술적인 전문성 요구 사항이 많아 등재와 관련한 일들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단이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지자체는 해당 유산의 보호, 정비,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등재신청서의 평가·심사·검증 및 세계유산등재대상 선정여부는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남원지역 일부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등재신청서에 일본서기의 기문 명칭사용 논란이 있으며, 이에 대해 남원시는 기문이라는 용어 사용은 남원시가 요청해서 사용하는 명칭이 아니고 고고학, 문헌사, 가야사 등 역사학계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라고 이방을 밝힌 것이며,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단에 검토 의뢰한 상태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단에서 문

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등재신청서 작성 경위설명과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단 연구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분들간의 대화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며, 또한 역사학자와 시민이 직접 소통하고 함께 토론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특히, 남원시는 등재 이후 기문을 포함한 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새로이 정립된 학술은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함을 강조했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조화롭게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로 성장 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공모 선정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

남원시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의 2022년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1억원을 포함한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사

업은 무형문화재 행정역량 강화와 무형문화재 협력 네트워크구축, 관광지원화, 홍보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지역 무형유산의 보호와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서는 남원시를 포함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양주시(경기), 원주시(강원), 전주시(전북),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7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남원시는 이번 공모선정으로 2022년부터 무형문화재 전승자와 문화재청, 및 지자체간 효율적인 소통체계를 구축,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하게 되어 무형유산 전승 역량강화를 위한 활성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행정역량 강화는 물론 전승체계화 강화, 무형문화재 신법 등 보호제도 업그레이드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대표 문화자원 육성 및 전통문화전라사업 개발 및 무형유산 투어 프로그램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확대와 미래유산 관광벨트화도 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남원시가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은 남원농악, 판소리 흥보가(보유자 이난초) 등의 국가무형문화재를 비롯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목기장(보유자 노동식, 박수태, 김광열), 옷칠장(보유자 김영철, 안근, 김을생, 박강용), 판소리 수궁가(보유자 박양덕) 등이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이번 사업 추진에 따라 향후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 모델을 새롭게 개발하고, 남원지역의 무형문화재 보호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남원농악.

전북광역여성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 8컷 만화 공모 시상식·캠페인 개최

전북광역여성새일하기센터(이윤애 센터장)는 지난 3일 경력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제작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은 만화 공모 시

상식·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경력단절예방의 날’을 맞아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출산,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기업, 가정, 사회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 주제는 출산·육아·인식개선만들기,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혁신적 실천방안, 일·가정 균형 문화만들기 등 3개 분야에 8컷 분량

순수 창작물로, 총 24개 작품이 접수됐다.

수상작은 내·외부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총 14편의 작품을 선정됐다.

특히, 수상작은 전시 및 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경력단절예방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위한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수상작 14편은 센터 로비에서 경력단절예방주간 기념으로 전시될 예정이다. /전주=김기두 기자

창업 성공 선배들과 문화 교육 ‘호응’

전북대 창업교육센터, 6개 분야 ‘라이프디자인스쿨’ 진행

전북대학교 창업교육센터(센터장 황운중)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 한 달간 선배들과 함께하는 문화수업 ‘라이프디자인스쿨’을 진행,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은 8월 한 달간 캘리그래피, 플로리스트, 커피&디저트, 마크라메, 가죽공예, 향수&디퓨저 6개 분야 문화교육을 받았다.

‘라이프디자인스쿨’은 전북대 창업교육센터가 창업동아리 과정을 거쳐 창업에 성공한 선배 창업가들을 초청해 교육을 제공, 현재 47기까지 진행됐다.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기대했던 대학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교육과 함께 창업에 성공한 선배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신청 학생만 400명을 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민하 학생(경영학과)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평소 관심이 있었던 마크라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매우 유익했다”며 “앞서 창업한 선배들에게 창업



에 임하는 마인드와 준비 등을 들을 수 있었던 점도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운중 센터장은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지친 학생들에게 어떤 문화 교육을 제공하면 좋을지 고민했는데 모두가 만족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창업 문화 확산 프로그램 기획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립농악단, 토요일 상설 공연 본격 재개

11월까지 매월 첫째·셋째 주 사물놀이·사자춤 등 무료 공연

정읍시립농악단이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선보이는 토요일 상설 공연을 재개했다.

정읍시립농악단은 휴가철인 8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잠시 중단했던 공연을 9월 1주차(9.4)를 시작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토요일 상설 공연은 하루 2회에 걸쳐 진행되며, 오후 1시 정음 생화차거리와 오후 4시 정촌가 요트구에서 펼쳐진다.

이번 상설 공연은 산업화로 점차 사라져 가는 정음농악 연행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사랑받을 문화상품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서는 정음농악 시연과 함께 사물놀이

와 비나놀이, 사자춤, 12발 상모, 민요 등 전통 연희마당을 선보인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추진되는 만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소규모 야외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상설 공연은 11월까지 열릴 예정이며, 공연 일정은 9월 18일, 10월 2일, 10월 16일, 11월 6일, 11월 20일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앞으로 공연내용의 다양성을 통해 더욱 사랑받는 토요일 상설 공연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